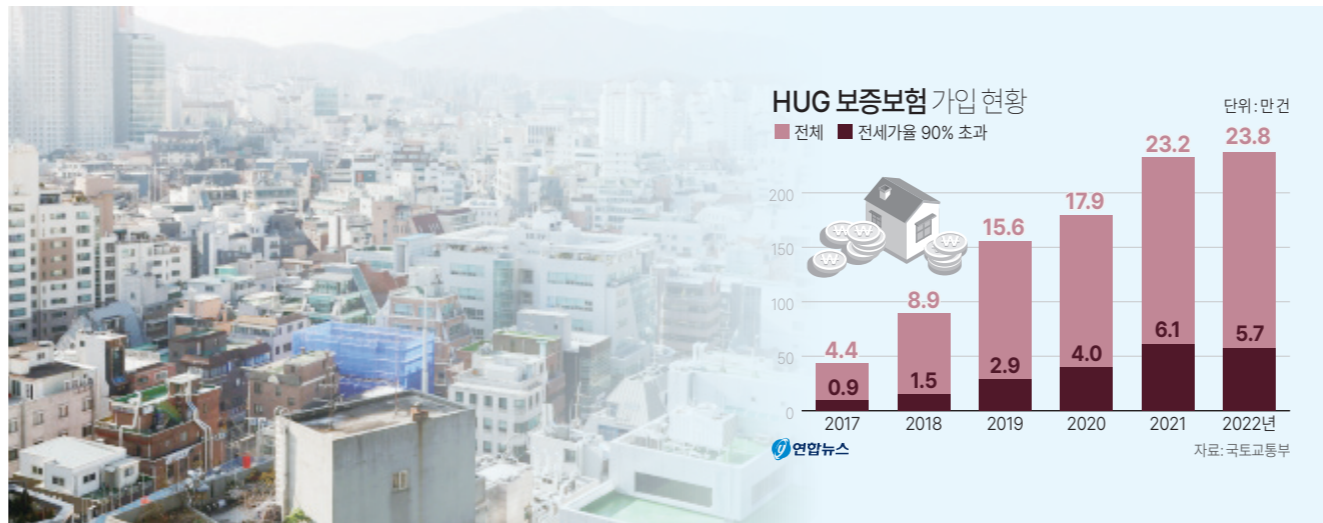


강서구는 빌라 88%가 전세보증 가입 어려워

내달 공시가 두자릿수로 떨어지면 불가울 더 악화
집토스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일시적 완화 필요”

〈1면에서 계속〉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의 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를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를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를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한 빌라 전세 거래가 이보다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집토스는 전망했다. 집토스 관계자는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에는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 전셋값도 동반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현대건설, 대전 유성온천 일대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유성’ 분양

현대건설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에 들어설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유성’을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4개동·전용면적 84㎡~총 473실 규모다. 힐스테이트 유성은 금리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과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 및 계약금 5%에 대한 무이자 대출지원 혜택으로 수분양자의 계약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 교통편의 경우 단지에서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과 갑천역이 가깝고 유성금호고속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있다. 한발대로와 계룡로·유성IC 등 도로망도 갖춰져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NC백화점·메가박스·유성온천역 일대 대형병원 및 기타 상권 등 생활 인프라도 탄탄하다. 아울러 주거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그 중요도가 커진 쾌적한 녹지공간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입지를 자랑한다. 대전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이 조성된 갑천근린공원과 인접해 마치 단지의 일부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유성은 유성온천 일대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호실을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량을 높였고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트렌디한 평면 구조로 설계된다. 입주자를 위한 입주청소·공간살균서비스·조식배달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외에도 세탁서비스·방문세차·펫케어·아이돌봄 등 7개의 호텔식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돼 수분양자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디지털로 동행하는 매력도시 서울 만들어요”

도시경쟁력 제고 위한 글로벌 포럼 14일 개최
미래 기술 전략·다양한 혁신 정책 심도 논의

서울시가 이달 1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디지털로 동행하는 매력도시 서울’을 주제로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할 방법을 탐구하고 기술적 격변 시기에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가 두 번째 개최다. 이번 포럼에서는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개념과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에 나선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1976년 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을 위해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고 2006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유누스 재단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빈곤·실업·환경의 3개 분야 당면과제에 대해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후 세션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행정을 접목해 서울이 매력도시

로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하고, 약자를 위한 서울의 다양한 혁신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극빈층을 위한 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시민을 위한 매력도시의 미래 기술 전략) △세션2(디지털 전환 시대의 상생도시 혁신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도심형 교통·공공예술·창업시스템·스마트 시티 등 시민의 삶을 위한 매력적인 서울을 만드는 방향을 제시한다.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주요 평가기관인 스타트업지움의 스테판 웨스터, 클라우드 컴퓨팅 계열의 글로벌 1위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김기병 총괄, 현대자동차의 서비스형 수송을 담당하는 TaaS 본부의 김수영 상무 등의 전문가들이 서울의 매력을 증진하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식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상생도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서울시청, 스카이라이프

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 약자를 위한 디지털과 사용자 혁신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티노 힐데브라트 지멘스코리아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부장·황승원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팀장·주성환 서울디지털재단 혁신사업본부 부부장·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DDP ‘디자인랩’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본 포럼이 “국내외 석학이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LH ‘3D 체험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디지털트윈 기술 통해 필요 서비스 발굴·제공

LH는 지난 6월부터 ‘LH 도시 디지털 트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마련됐다. LH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일환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시계획단계에서도 활용하는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정보를 3D로 변환해 입주 이후의 아파트 단지나 주변 건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도 2021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LH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계획 중인 도시를 3차원의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기고 도시계획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시경관·일조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 주택을 자동배치 하는 등 차별화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수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가상도시 체험 서비스’는 입주 이후의 모습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지구 내 공급 예정인 주택에 대한 평면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특정 주택 동·층수를 설정해 조망·일조·통학 경로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사전계약 당첨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실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추가 기능과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되고,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사전계약 당첨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홈페이지 개선점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요소를 발굴하고,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10년간 약 250㎢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핵심 기술 발전에도 LH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수 기자 ssshin@skyedaily.com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3D 정밀측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해왔습니다.

영토주권 강화, LX공사가 함께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